

■재정운영 주마다 공개
■신도교육-신행등 강화

■자비의 쌀모으기 운동
■열린 문화강연회 마련

“조계사가 변하고 있다”

조계종의 수(首)사찰 조계사가 달라지고 있다. 수차례의 종단사태 때마다 난투극과 투석·최루탄·화재 등으로 얼룩져 ‘한국불교 1번지’라는 수식어를 붙이기조차 부끄러웠던 조계사가 불명예스런 이미지를 벗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계사(부주지 지흥)는 되돌아보기조차 민망한 종단사태후 반년만에 사찰운영과 수행, 복지, 문화, 환경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런 모든 변화의 근저에는 조계

사를 스님들 위주가 아닌, 신도들, 나아가 시민과 함께 하는 사찰로 만들겠다는 조계사 사부대중의 의지가 강하게 배어 있다.

변화된 모습은 우선 사찰운영 방식에서 눈에 띄게 두드러진다. 매주 신도회 임원회의를 열어 한 주간의 사찰 수·출입 현황을 공개하는 등 투명한 사찰운영의 기틀을 확립했으며, 사찰의 현안을 결정할 때는 신도들의 의견을 수렴,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이같은 투명한 재정운영은 13일 임원총회에서 밝혀진대로

종단사태 이후 사찰수입이 줄었던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올 상반기 재정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가량 늘었다. 정재 누락이 없었다는 반증이다.

스님은 물론 신도들의 교육과 수행생활이 엄격해진 수행법위기도 달라진 것 중의 하나. 신도들은 3개월 기초교리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1박 2일 출가 수련프로그램까지 이수해야 한다.

지난 13일 북부동포와 불우이웃돕기 등을 목적으로 한 ‘자비

의 쌀’ 모으기 운동 일환으로 대웅전 앞 화나무 아래 설치한 3개의 쌀독은 조계사가 복지사업에 적극 뛰어든다는 상징물로 대변된다. ‘자비의 쌀독’에 모여진 쌀은 자양복지관의 무료급식과 결식청소년 돕기, 구로 ‘파랑새나눔터’ 등 복지사업에 쓰인다.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열린 강연회’와 6월 시작한 ‘외국인 안내센터’ 및 ‘외국인 불교 강’도 한국불교를 널리 알리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격주로 실시되는 ‘열린 강연회’는 외



◇조계사는 경내에 ‘자비의 쌀독’을 상징하고 결식아동들에게 사용하는 등 복지사업을 강화한다.

부 강사를 초빙해 불교 외에도 일반 문화와 관련한 수준 높은 강의를 신도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조계사에 끌려들게 하고 있다.

조계사를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사찰 소개와 함께 수행법 등을 안내하는 ‘외국인 안내센터’도 외국인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불교강의도 진행되고 있다.

최근 조계사에는 곳곳에 나무 벤치가 놓였다. 조계사에 들른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한 것. 현재 사찰조경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문화교육관 2층을 신방 및 학생법당으로 전환하기 위해 8월중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nia.com)

뉴스 & 뉴스

동대 우수연구센터 선정

동국대(총장 송석구) 양자기능반도체 연구센터(대표 강태원)와 밀리미터 파신기술연구센터(대표 이진구)가 과학기술부로부터 올해 우수연구센터로 선정됐다.

양자기능반도체연구센터는 우수과학연구센터로, 밀리미터파 신기술연구센터는 우수공학연구센터로 선정돼 과기부로부터 연간 7~12억원 정도의 연구비를 지급받게 됐다. 김지영 기자

김소장 대책위 1차회의

지난 6월23일 25개 단체로 구성된 ‘김소장 대책위’는 14일 조계종 포교원 3층 회의실에서 제1차 공동위원장 회의를 열고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 판결문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 제출할 항소이유서 등을 검토한 후 253명의 불자 변호사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공동위원장들은 또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박동진,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고산스님 등과 면담을 갖고 종단차원에서 대대적인 항의시위를 전개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재경 기자

‘승가대 학인들의 입장’

중앙승가대 총학생회(회장 대혜)는 9일 ‘중앙승가대 이전’에 대한 학인들의 입장’ 제하의 성명서를 내고 “종교차이로 승가대 이전이 지연되고 있고, 낙하산식 인사로 학내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김포화사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 한다는 소문마저 들린다”면서 “승가대 이전불사를 방해하려는 어떤 세력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총학생회는 이어 총무원이 김포화사 공사비 지급에 대한 계획을 밝히고 즉각 이행할 것, 학교에 대한 독립적인 운영을 중단할 것, 승가대 이전불사에 비협조적인 관계자들은 승가의 이름으로 각성할 것 등의 입장을 밝혔다.

김재경 기자

27일 조계종 성역화 공청회

지난 6월말 열린 예정이었던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사업을 위한 공청회가 27일 총무원1층 불교회관에서 열린다. 공청회는 총무원장 고산스님의 법어와 성역화 사업의 필요성(재무부장 일철스님), 조계사 환경개선을 위한 제안(박언근 한국건축역사학회 회장), 성역화사업을 위한 기본전제와 총무원장간담회(회장) 발표에 이어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정성운 기자

도박관련 스님 11명 징계

조계종 초심회계원(위원장 정경)은 9일 24차 심판부를 열어 지난 해 8월 승려도박사건에 관련된 11명의 스님 가운데 지운스님 공판정지 2년, 10명에게는 문서견책의 판결을 내렸다.

정성운 기자

석남사앞 상가 허가취소 ‘가능성’

“전사법 위반 명백”...업주와 대토·매입안 논의

울주 석남사(주지 영운) 앞에 건설중인 집단상가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원회(위원장 성조)가 14일 총무원에 제출한 ‘석남사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석남사 일주문 앞 50m 거리에 있고 있는 집단상가 건물에 대한 허가과정에서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과 조계종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1. 2항은 “경내에서의 건조물의 신축

증축 개축 또는 폐지, 부동산의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때 문화관광부장관과 조계종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석남사는 전통사찰이며, 집단상가 총면적 7천8백여평 가운데 6백82평이 석남사 소유 토지이다.

이에 따라 사찰환경위는 “전사법을 위반했으므로 허가의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울주군청의 허가 사항에 대한 행정과기 신청을 청구해야 한다”고 총무원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허가청인 울주

군도 전사법 6조 1. 2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 석남사 주지 영운스님이 지난 4월 건축허가 이전에 파헤쳐진 땅을 복원하기 위한 토지사용승락서에 서명한 것을 마치 건축허가를 위한 동의인 것처럼 서명을 악용한 것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석남사는 건축주인 흥모씨에게 현 부지의 대토 및 매매를 사해해결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nia.com)

직지사 스님들과 신도들은 13일 일주문 앞 음식점 신축 예정부지에서 음식점 허가철회를 요구하는 결구대회와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직지사 스님들과 신도들은 13일 일주문 앞 음식점 신축 예정부지에서 음식점 허가철회를 요구하는 결구대회와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직지사도 상가건립반대 서명

조계종 제8교구 김천 직지사 일주문 앞 20m지점에 휴게음식점 신축이 허가되어 스님과 신도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천시(시장 박팔용)가 이 일대 유적지인 직지사 일주문 앞 20m지점에 휴게음식점 신축을 허가해 주자 직지사스님과 신도들 1천여명은 대중 공동체’ 창립준비위원회는 허가철회를 요구하는 결구대회와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들은 “이번 허가는 지난76년 직지사를 청정도량으로 바꾸기 위해 사찰 앞 상가를 멀리 이전한것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사찰수행환경을

저해하는 음식점 신축허가를 철회해줄것”을 요구했다.

김천시는 일주문 앞 음식점건립이 사찰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허가해주지 않았으나, 근거법령인 건축법 제8조4항이 정부의 규제완화조치로 지난2월 폐지됨에 따라 이번에 허가를 내주었다.

직지사 환경보존추진위원회(위원장 범초스님)는 앞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김천시청에 민원 제기를 하고 법원에 공사중지가 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허가철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윤호 기자

또 성보도난

경산 환성사 복장유물 거창 가섭사지 석탑

조계종 제10교구 순화사 말사인 경산 환성사의 거창 원초초등학교에 각각 도둑이 침입, 복장유물과 삼층석탑을 훔쳐 달아나 여물철 성보문화재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환성사 주지 현관스님에 따르면 9일 새벽2시10분경 둔탁한 소리에 잠을 깨 방담으로 달려가자 복면괴한 3명이 쇠연장으로 석가모니불을 깨뜨리고 있었다는 것. 실랑이끝에 입당3명은 뒷산으로 도망쳤고 이 과정에서 스님은 허리에 타박상을 입고, 법인들은 불상을 뒤로 제치고 좌대일부분에서 하복부까지 부순 뒤 복장유물을 털어갔다. 이 불상은 조선

중엽에서 말기사이에 조성된 토불(土佛)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으므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거창군 위원장 장기리 위원 초창고 김정오교사에 따르면 12일 오전 8시에 출근해 보니 무실 앞 화단에 세워져 있던 삼층석탑이 없어졌다는 것. 도난당한 삼층석탑은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최근 문화재관리국 정밀조사 결과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명돼 문화재 지정을 신청중이다. 이 석탑은 원래 거창군 위원장 김인섭씨가 사찰에 기증한 것이다. 가섭사가 불에 타 버린 50여년전 위 천초등학교로 옮겨졌다. 경찰은

문화재 전문 달이범이나 석탑 수집가들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다.

이윤호·오종욱 기자
(yhlee@buddhania.com)

‘사부대중 공동체’ 준비

지난해 조계종 사태때 결성했던 ‘종단안정과 개혁을 위한 범 불교연대회의’가 20일 조계사 교육회관에서 마지막 회의를 갖고 공식해산. ‘미래를 열어가’는 사부대중 공동체’로 거듭난다. 이에 따라 ‘미래를 열어가’는 사부대중 공동체’ 창립준비위원회는 같은날 오후 7시 1차 준비위원회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불교계의 현실진단과 대안’의 길을 주제로 현승스님이 발제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레이키 - 그날부터 기능력자가 되는 법 전수

세상의 여러 기공법과는 달리 누구나 그날부터 기능력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레이키(Reiki)입니다. 이미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캐나다, 중남미 여러나라, 인도를 포함하는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의 수백만명에 대한 전수설적이 증명하고 있어서 의문을 가질 여지가 없습니다. 누구나 그날부터 기능력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다 다만 한가지 제약조건은 있습니다. 확실한 자각과 높은 능력을 가진 레이키 마스터에게 전수를 받아야 한다는 제약입니다. 확실한 자각과 높은 능력을 가진 레이키 마스터야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능력을 전수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의 전수 방법은 전통적으로는 명수(靈授)라고 했고, 현재는 세계적으로 어텐먼트(Attunement)라고 하고 있는데 이 어텐먼트를 하는 능력은 레이키 마스터별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높고 확실한 능력을 가진 좋은 마스터에게 전수를 받는 것은 여러분의 운이더 복이 할 수 있습니다. 내(백희준)는 레이키 마스터로서 높고 폭넓은 능력을 갖기 위해 2년에 걸쳐서 10여 차례나 일본을 내방하면서 다양한 레이키 유파(연대학원 여러 강령의 우스이시 레이키와 카루나 레이키)의 레이키를 전수받았고 다른 나라로 전수되지 않은 극비의 전통적 레이키(眞傳靈氣라고 합니다)도 전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도리어 일본인을 포함하는 외국인이 한국으로 레이키를 배우러 올 수 있게 하는 태세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레이키(氣)는 일본에서 태어나(우스이시 카오세가 창시) 사람이서 발전해 일본으로 역수입된 경위를 가지고 있는 세계 인류의 ‘氣문화’ 재산입니다.

레이키는 진정한 의미의 「우주생명 에너지」이며 「사랑의 힘」과도 같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사는 재미를 못하고 살던 많은 사람들을 활력과 행복감과 환희심이 넘치는 생활로 되돌려 주는 힘(요법)의 도구입니다.

정통적 의료와 힘을 합쳐 많은 난치병 환자에게 건강을 되찾아 주는 힘의 도구입니다.

1. 레이키법의 전수 절차

우리 ‘현대 생활 레이키 연구회’에서는 레이키 능력 전수단계를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전문 임상 응용단계」, 「제4단계」로 구분하여 점진적으로 능력을 전수하고 있으며, 별도로 「카루나 레이키」도 전수하고 있습니다.

※ 제1단계 : 2일

(1) 1시간의 레이키 주입 (2) 2회의 어텐먼트
(3) 발령법 학습 (4) 12포인트 자타치료법
(5) 오라크리닝법 (6) 차크라조정법
(7) 레이키호흡법 (8) 동식물치료법·에너지주입법

※ 제2단계 + 제3단계 : 2일

(1) 2단계의 어텐먼트 3회, 3단계의 어텐먼트 3회와 각단계에 따른 상징물 전수 (2) 물질, 에너지, 상품, 음식물, 환경 등에 대한 에너지 주입, 정화법 (3) 원격 치료법, 본격적 레이키 기술법 (4) 생활 각방면에서의 레이키활용법 (5) 기가발법, 황정행기법, 광명상법 (6) 셀프어텐먼트법, 침나개발법, 단축레이키요법 등

※ 전문임상 응용단계 : 수일

(1) 3개월에 걸쳐서 실시되는 4회이상의 어텐먼트
(2) 우스이시 전통적 레이키요법, 완전한 레이키 요법, (3) 2507가지 이상의 질병에 대한 시간 단축 치료법, 비례 학습
(4) 열달치료법, 우스이시 전통적 음양 반응점 요법
(5) 전문적 레이키요법가가 되는데 필요한 새로운 임상 자료나 레이키관련 정보의 추가공급
(6) 사이키시저리(시미결술)법

※ 카루나 레이키 : 1일

카루나레이키는 미국의 레이키마스터인 윌리엄랜드씨가 1995년부터 개발해 보급하기 시작한 새로운 레이키법이며 사람의 심신을 치료하는데 8가지 종류의 치료용 기를 우스이시 레이키 요법에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2. 지도자 : 백희준 (우스이레이키마스터·카루나 레이키마스터) 번역저술가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Reiki.co.kr> ♣
☎ 문의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구 한국레이키요법 연구학회)
전화 (02)720-5682, 725-2311, 핸드폰 019)392-2557 서울시 중로구 신문로 2가 89 퍼어선빌딩
※ 반드시 미리 전화하고 오셔야 하며 공휴일에도 개별 지도합니다.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갈릴(배꼽)에 착용하면 방항약용성분의 성분이 신갈릴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보인다. 향비는 자연적인 과민증과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은 생식계통을 자극하여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향비는 배꼽에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불규, 생리불순, 무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 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에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생리통·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했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대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의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라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깨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영희)

▶ 해당되는 증상(○) 미심시요.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억울이 있다
-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배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고려물산·향기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1기리 여성 55%되는 분은 즉시 전이하세요